



제 꾀에 죽은 여우

심금옥

며칠째 굶주린 여우가 산판을 헤매고있었습니다.

온종일 돌아쳤지만 먹이감이라고는 조금도 구할수 없게 된 여우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마을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느사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에 이른 여우는 여윈 목을 빼들고 큰길쪽만 줄곧 살폈습니다. 혹시 집마당에서 뛰쳐나와 다니는 풋내기 헛집승이라도 해쳐볼 속심에서였지요.

하지만 한동안이 지나도 집집승은커녕 쥐 한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굶어죽고말겠어. 무슨 수가 없을까?)

이때였습니다.

오솔길 한끝에서 지계를 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뒤에 날래게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피던 여우의 치째진 눈이 갑자기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니글쎄 한두름은 실히 될 살진 청어들이 지계에서 푸들쩍푸들쩍 춤을 추고있는게 아니겠나요.

창자가 뒤집힐듯이 구수한 비린내가 코를 찌르며 물씬 풍겨왔습니다.

바다에서 금방 건져낸 생선이 틀림없었습니다.

(해해, 눈이 보배라더니 끝내 걸려들었

군. 헌데 어떻게 하면 조것들을 몽땅 먹어치울까?)

가늘게 쪼프린 눈을 요리조리 굴리던 여우는 《웁지!》하고 무릎을 치더니 살금살금 몇걸음 앞질러나가 오솔길에 죽은듯이 엎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죽은 여우가 다나를 기다리고있다니... 허허, 오늘은 횡재를 하는가보지.》

가까이 다가온 사나이는 너무 좋아 벌쭉 웃고나서 여우를 닮은 청어 두름우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부르며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이 이쯤 되고보니 여우는 지계에서 물고기들을 톱 하나 안 들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나이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될 때라 사나이는 얼마쯤 가다가 지계를 벗어 땅에 내려놓는것이었습니다.

《어제밤 비바람에 애기나무가 넘어졌군.》

지계를 벗어놓은 사나이는 넘어진 애솔나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패재를 올리며 청어를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청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빨리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을 뺄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배가 불렀지만 여우는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라 기를 쓰고 먹어댔습니다. 흘끔흘끔 사나이를 살피는것도 잊지 않구요.

여우가 청어를 다 먹어치우는것도 모르고 사나이는 다시 심은 나무둘레에 돌까지 깔아주었습니다. 뭔가 주섬주섬 주머니에 골라넣기까지 하면서 말이예요.

(흥, 느렁뱅이로군.)

마지막 한마리까지 다 먹어치운 여우가 혀끝으로 입을 다시며 살피보니 사나이도 일을 다 끝냈는지 지게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것이였습니다.

(이젠 뛰자.)

여우는 날랜 다리를 믿고 후닥닥 뛰쳐달

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단한 차돌이 날아와 여우의 대갈통을 맞혔습니다.

《깨갱-》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모로 나가 너부러졌습니다.

사나이가 나무를 심으면서 주머니에 골라넣었던 뽕족돌을 꺼내 번개같이 던진것이 여우를 단번에 명중했던것입니다.

《허, 그놈 꽤 교활한 놈인걸. 하지만 내가 돌을 던져 날아가는 참새도 잡는 돌팔매질명수라는걸 몰랐을테지. 남을 속여 제 배를 채우려다가 청어값을 제 목숨으로 물게됐구나. 허허허.》

사나이가 혀를 빼물고 늘어진 여우를 내려다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